

宗說



권헌국 고문

저는 서울 변두리에 작은 약국을 운영하면서 매월 초에 발행되는 안동권씨종보를 읽으면서 우리 권문이 변천하는 모습과 여러 족친들의 소식을 듣고 보는 것을 낙으로 삼으면서 여생을 보내고 있는 안동권문의 한 사람이다. 요즘 세상은 너무나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듯하여 그렇게 자주 보던 신문 방송도 보기가 싫을 정도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우리 종보는 100만 족친의 역사와 미풍양속이 가득 담긴 그야말로 명문대가의 산증인처럼 발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마음 흐뭇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안동권문의 일원이려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종보를 보았으면 하는 바램 간절할 뿐이다. 100만 족친이 단합하고 신뢰하고 믿으면서 천년만년 이어 가야 할 후손들의 정신이 아니겠는가 사료된다.

아울러 선조들의 애족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권윤도원수의 행주대첩 기념행사를 고양시 유림에서 주관하던 행사를 정부 행사로 격상시키기 위해서 100만 족친의 서명운동을 거족적으로 전개하여 전국 방방곡곡의 문중

대표자들로부터 받은 1만여명의 서명을 권의사와 함께 청와대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부분은 너무나 크나큰 우리 문중의 대사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없다 하더라도 나라가 임진왜란이라는 풍전등화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발휘한 권윤도원수의 호국정신과 역사적인 교훈을 계승 발전시키자는 의미는 충분히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과거에는 시조 태사공의 춘추향제에 불과 1~200여명 밖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난번 추향제에는 향사 이래 최대 인원인 600여명의 족친들이 대거 참제하여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런 변화는 대중회의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평창공과 학림공의 사적비 제막식은 송조이념은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이는 역사적으로 보면 수백년 동안 불후불망의 공적을 세운 두 선조의 공적비를 세워야 한다고 말들만 무수히 오고 갔지만 정작 실천에 옮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종보와 족친들을 통해 사적비 제막식 행사가 거행된다는 소식은 알고 있었지만 제막식 때는 아쉽게도 참석하지 못했다. 그 후에 고향 가는 길에 능동 성지에 둘러 시조 태사공 신도비 옆자리에 우뚝 서 있는 두 분의 사적비를 보았는데 보는 순간 너무나 웅장하여 가

슴 깊은 곳에서부터 나도 모르게 벅차오르는 뿌듯함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다. 참으로 자손만대에 길이 길이 귀감이 될 사적비가 아니겠는가 생각하니 기어코 눈시울까지 뜨거워짐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우리 안동권문의 자존심과 긍지는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고 누구에게도 빼앗겨서도 안 될 것이다. 이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안동권문의 모든 종사는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비방성 유인물을 배포한다든지 법적인 문제로 비화시켜서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아무리 심각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대화로써 권심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자손만대까지 물려주고 또 대대손손 지켜져야 할 것이다.

특히 권해옥 회장 출범 이후 고문들에게 추석과 설 명절 때에 연하장과 자그마한 김 한 통을 보내주곤 한다. 이는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고문들이 대중회를 위해 몰심양면으로 기여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그 고마운 마음 금할 길 없다. 권해옥 회장께서 뒷방에 물러앉아 있는 고문들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모습은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마음의 징표이자 대중회의의 참모습이 아닌가 하여 고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전국 100만 족친여러분! 새해에도 송조정신이 앙양되어 화합할 것을 믿으며 각 가정마다 웃음꽃이 만발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실감나는 것 같다. 우리는 작년 5월에 여러분 덕분에 정기총회를 대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올해 역시 멋진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족친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2020년 우리 안동권문의 역사는 1091년이 되는 해이다. 안동권문의 천년의 역사는 우리들 각자를 통해 이어지고 있고, 그 출발은 바로 지금 여기의 '나'에게서 또 여러분과 함께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욱 반갑다. 그럴수록 서로 아껴주고 서로 챙겨주는 정감이 넘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바쁘실 텐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했다. 회원들은 준비된 음식과 정겨운 이야기보따리를 나누며 정겨운 시간으로 한 해를 시작했다.

마창진 종친회장 권태형

권은진 부회장과 권숙자 운영위원은 종친회에 대한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날 공식적인 정기총회를 마치고 가수공연과 장기자랑이 펼쳐졌다.

특히 가수공연에는 영남지역 인기가수인 권정화씨를 비롯해 많은 가수가 흥겨운 노래를 불러 회원들의 흥을 돋우어 어깨를 들썩이게 했다. 인기가수 권정화씨는 '사 진한장', '연분홍 사랑' 등의 인기곡으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어서 장기자랑에서 회원들은 숨겨온 끼를 마음껏 발휘했다. 끝으로 회원들은 경품 추첨을 통해 종친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들이고 귀가했다.

대구종친회 사무국장 권상주



권성용 회장

부산종친회(회장 權聖容)는 지난 1월 9일(목) 오후 6시 부산 연산동 해암뷔페에서 경자년 신년 하례회를 열었다. 부산에 거주하는 종친 15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이날 하례회는 참석자 모두가 서로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송암(성용) 회장은 참석 인사 소개 후에 이어진 인사말에서 “올해는 우리 종친회가 더욱 단합되고, 더욱욱 발전하는 해로 만들어 나갈 것”을 역설하고 “부산종친회가 전국 1등 종친회로 굳건하고 활기차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가일층 단합하고, 서로 성심을 다해 화합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지난 4년간 종친회장 재임 중 많은 일을 하고, 기금도 크게 불러 놓는 등 열성적으로 헌신해 온 원광(영호) 전 회장에게도 치하와 감사의 뜻을 전하자고 제안하여 다 함께 큰 박수를 보내었다.

이어서 덕담에 나선 송계(길상) 고문은 많은 종친 앞에 인사드릴 기회를 주신 송암(성용) 회장께 감사의 뜻을 전한 뒤 “경자년 새해 온 족친의 건강과 새해 소망을 모두 이루기를 축원”하면서 지난 해 전국

2020년 제103회 부호장공파종회 정기총회 개최

부호장공파종회(회장 권영건)는 1월 14일(음력 12월 20일) 안동시 안기천로(태화동) 안동권씨종친회관 2층 회의실에서 종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103회 부호장공파종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파종회장을 역임했던 권인호 고문을 비롯하여 권숙동 안동종친회장, 권주연 전 안동종친회장, 한나라당 권택기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해마다 정기총회는 안동시 어가골길(태화동) 일원정에서 개최하였으나 작년 부터 겨울철 종원들의 건강을 고려, 시내와 가까운 종친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개최하고 있다.

권태옥 사무국장의 사회로 국기에 대한 경례, 시조모소 및 파조위패 망배, 상응례를 하였다. 권영건 파종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종원들이 총회에 참석하여 주어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하고 “작년 11월 16일 안동시 서후면 능동재사 부근에 세워진 평창공과 학림공의 사적비 내용을 안동권씨로서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며 두 선조의 업적 내용을 소상히 소개하기도 했다. 권숙동 안동종친회장은 축사에서 “올해는 경자년 흰쥐띠 해로 부지런하고 다산을 의미한다”



회의장 전경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영호 종친회장장과 갑수 대회장을 비롯한 청년회의 노고를 치하하고, 특히 “경주에서 먼 길 내왕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은 도영 준비위원장에게도 큰 박수를 보내자”고 하여 종친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뒤이어 원광(영호) 명예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고문, 자문위원을 비롯한 종친 모두의 새해 건강과 만복을 기원”하고 지난해 체육대회를 비롯한 종사에 대한 많은 협조와 성원에 감사의 뜻을 전한 다음 “회장 임기가 끝나도 마음은 여전히 종친회에 머물러 있고, 또 전국종친회장협의회도 그대로 맡고 있다.”고 밝히면서 경험이 풍부한 새 종친회장을 중심으로 모두 한마음으로 중

친회 발전에 기여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이어진 하례회는 혁신 신장요양병원장과 태식 사상구 운영위원장의 인사말을 들은 뒤 기타 토의를 거쳐 부녀회합창단의 선창으로 ‘권문의 노래’를 합창하고, 운산(중원) 자문위원의 만세삼창으로 1부 행사를 마치고 모처럼 만난 족친끼리 정담과 회포를 나누며 만찬을 즐겼다.

만찬 뒤에는 태식 부회장의 사회로 새해를 축하하는 춤과 노래로 신명을 돋우며 족친 간의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특히, 대중회 권해옥 회장의 축하 화환과 함께 족친이 답지하고, 영호 명예회장이 준비한 기념 타월 200매로 더욱 따사로운 하례회가 되었다. 부산종친회 사무국장 권재영



고 말하고 “우리 권문은 각 파종회 마다 원로회, 청장년회를 만들어 단결된 모습을 보여 매우 아름답다”며 “우리 부호장공파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원로회를 조직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월 15일 오전 10시 안동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안동권씨신년인사회’를 개최하니 많이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나라당 권택기 예비후보는 “어르신과 족친 여러분들에게 새해가 되었으니 큰절을 올리겠다”며 단상 위에서 큰절을 한 후 “안동은 변해야 하며 안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축사가 끝나자 권오영 감사는 감사보고를, 권태옥 사무국장은 경과 및 결산보고를 각각 한 후 2020년도 예산안 1천3백여

만 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기타토의에서 작년 총회 때 안동시 옥동에 있는 ‘발 매매에 관한 건’이 부결되었지만 권주연 전 안동종친회장이 다시 거론했으나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했다.

이날 종원 20여명이 160만원의 성금을 냈으며 특히 권태복 대중회 부회장이 성금을 보내오는 등 족친간의 따뜻하고 끈끈한 정을 보여주기도 했다. 주최 측은 참석자 전원에게 김우산 1개씩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회의가 끝나자 안동종친회관 1층에 자리잡고 있는 ‘양반밥상’식당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담을 나누면서 불고기를 곁들여 점심식사를 한 후 헤어졌다.

보도부장 권영건

〈2020年 1月 宗報대금 납부자 명단〉

안동권씨 종보대금을 납부해주신 족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더욱 알찬 종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 12.25 ~ 2020. 1. 29.총 납부자 28명/지사 4곳 총 4,080,000원

단위: 원

권득호(용인) 30,000	권영일(군포) 30,000	권오진(안동 남후면) 30,000	권준원(논산) 30,000	권후중(제천) 30,000	권명식(하남) 30,000	지사지국 납부지역
권병석(의정부) 30,000	권영찬(김포) 30,000	권오창(광주) 30,000	권종길(포항) 30,000	권영현(진주) 30,000	권혁길(청주) 30,000	강릉종친회(권영각) 2,000,000
권병우(양주) 30,000	권영창(의왕) 30,000	권우범(서울강남) 30,000	권청자(제천) 30,000	권택훈(경주) 30,000	권혁성(서울종로) 30,000	마포종친회(권승구) 300,000
권영대(고양) 30,000	권영택(대구) 30,000	권재용(포항) 30,000	권태원(김포) 30,000	2020년 선납자	권도현(창원, 합성동) 30,000	장수종친회(권정희) 200,000
권영식(봉화) 30,000*	권오봉(대구) 30,000	권재주(안동) 30,000	권태인(대구) 30,000	권혁동(평택) 30,000		충주종친회(권오협) 740,000

* 납부자 본인 확인이 필요하오니 대중회로 꼭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